

# 새한-태광산업, 임금동결 확정

## 중국 화학섬유산업 성장 위협적 ... 경기침체에 내수부진 발목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섬유업계에서 임금 동결이 확산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새한은 노사협상을 통해 2004년 임금을 동결키로 합의했다고 3월9일 밝혔다.

새한은 2000년 10월 워크아웃 개시이후 전체 직원의 약 40%를 감축하고 영상과 음반 등 총 7개의 적자 사업부문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결과 2003년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으며, 2004년 말 워크아웃 줄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태광산업도 2월 말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협상에서 2004년 임금동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실시에 합의했다.

또 월차를 폐지하는 등 휴가제도를 변경하는 대신 수당을 인상 조정했다.

화학섬유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화학섬유산업 급성장에 따라 원가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기업의 발전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임금동결에 나서는 곳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3/10>